

정읍시, 치매 걱정 없는 건강 사회 만들기 주력

금봉동 치매안심센터 신축 이어
시립요양병원에 전문병동 증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극대화



유진섭(가운데) 정읍시장이 최근 열린 '2019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정읍천변을 따라 걸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과 다각적인 치매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집중한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발맞춰 치매 예방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 관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집중한다.

시는 또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치매 인식 개선에도 행정력을 기울인다.

시가 추진하는 치매 예방 관리사업 등은 지역의 65세 인구 비율이 25.7%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을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현에 나선다.

이 병원은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34억7200만원이 투입돼 1동 4층 1130㎡의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이 병원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관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 진료를 위해 환자 낙상용 침대 등 의료장비 9종 157

대를 구입했다.

또 치매전문 54병상을 설치하고 치매환자를 위한 가족교육실, 프로그램실 등도 운영한다.

병원이 올해 말 완공되면 치매환자 돌봄이나 치료,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등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아울러 금봉동 노인복지타운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 센터는 오는 10월 지상 2층, 연면적 975㎡ 규모로 완공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검진에서부터 치매환자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상담실과 검진실, 가족 카페, 프로그램실, 인지·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쉼터 등이 들어선다.

또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치매안심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르신들께서는 1년에 1회 정도 꼭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치매 조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서울대, 신품종 콩 종자 개발 나서

순창군과 서울대학교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콩 종자 개발에 나섰다.

순창군은 최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원과 순창 콩 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 협의 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이석하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두 기관은 순창군 내 지역 농업인과 장류 산업 발전을 위한 순창 콩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협의회를 통해 기존 대원콩의 단점을 보완한 신품종을 개발, 순창군 농업인의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순창군만의 명품 장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다.

앞으로 서울대는 자체 보유한 우수한 인력과 유전자원을 활용하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적응성 및 생산성 검정을 통해 순창군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는 데 협력,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콩 품종은 순창군을 대표하는 고유 품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장류종자센터 조성을 통해 개발된 순창 콩의 종자 증식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서울대와 새로운 콩 종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과학 협력 연구를 통해 순창군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이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전북농협, '스쿨팜' 사업 본격 추진

초등학교 유희부지 활용 방울토마토 심기 등 농사 체험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도·전북도교육청·3개시(전주·군산·익산)·농협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스쿨팜(농업체험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쿨팜은 대다수 도시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내 유희 부지인 화단이나 자

투리 공간을 활용해 밭을 조성한 후 11월까지 주 1회 수업시간에 농사체험을 하며 농업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주 20개교, 군산 8개교, 익산 12개교 등 총 40개교에서 1학기에는 방울토마토 등 10종의 모듬 채소, 5월에서 10월까지의 벼 체험, 2학기에는 무·배

추 김장 채소 등 농사 체험장을 운영한다.

또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샌드위치 만들기, 김장체험 등 식체험도 함께 이뤄진다.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은 "학교 내 텃밭을 활용한 스쿨팜은 노동과 놀이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며 "우리 학생들이 농경문화 체험을 통해서 생명과 협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봄 여행주간

관광객 유치 총력전

고창군이 봄 여행주간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여행주간'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여행수요를 분산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국내 여행 특별 주간이다.

군은 이번 봄 여행주간에 남녀노소 취향 만족을 위해 학원농장에서 진행되는 '정보리밭 축제' 테마를 강화하고 있다.

또 5월 9일에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전라예술제'가 고창에서 열려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 등 공연단체가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전국의 독서가를 매료시킬 '2019 고창 한국지역도서전'도 준비를 마쳤다.

'제56회 전북도민체전'도 다음달 10일부터 사흘간 고창 전역에서 38개 종목, 5만여명이 참여해 펼쳐진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지리산국립공원, 바래봉 지킴이 '운봉분소' 문열어

지리산의 수호천사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가 바래봉 일대를 수호하기 위해 운봉분소를 열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립공원 협치 위원회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봉분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운봉분소는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해 있다. 앞으로 운봉분소에서는 매년 50만~60만명의 탐방객이 오가는 바래봉 일대의 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김성태 운봉분소 소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바래봉 주변을 찾는 탐방객들

의 안전관리부터 산림 훼손 방지, 환경정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한다.

운봉분소가 개소됨으로써 지리산의 체계·효율적 관리와 함께 바래봉 일대의 관리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점현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소장은 "현판 제막식을 통해 운봉분소 개소를 알리게 돼 기쁘다"면서 "바래봉 산철쭉 쇄토, 외래식물 제거 등 현안사항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시행해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자원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익산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개소

익산시는 지역 슈퍼마켓들의 물류센터인 '익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를 증축하고 최근 개소식을 가졌다.

증축공사를 통해 전체 건물면적이 4110㎡에서 5690㎡로 1580㎡ 늘었다.

이번 증축공사에는 국비 10억원 등 17억원이 투입됐다.

증축된 면적은 진열대와 판매대로 활용

되며, 이 덕분에 취급 품목이 공산품에서 야채, 과일, 냉동제품으로 확대된다.

취급 품목이 늘며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는 중소상인도 조합원으로 참여해 혜택을 보게 됐다.

익산시는 이번 증축을 기점으로 340여명의 조합원이 6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물류센터는 슈퍼마켓 등이 공동 구매로 물품 매입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개소식에서 "물류센터 증축으로 서비스 품목이 확대돼 더 많은 중소상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집단지혜를 발휘해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구 덕남동 임야, 추천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